2018학년도 경찰대학 1차시험 (국 어)

※ 총 12쪽 45문항(2점 35문항, 3점 10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한글맞춤법에 어긋난 것은?

① 오늘 저녁에는 생선으로 졸임을 만들었다.
② 좌수(坐睡)는 '앉아서 졺'을 뜻하는 말이다.
③ 만듦새를 보니, 정성을 들인 것이 분명하다.
④ 진정한 봉사는 다른 사람의 알음을 바라지 않는다.
⑤ 눈이 내리고 땅이 엶으로 말미암아 길 떠날 생각을 접었다.

2. <보기>의 한글맞춤법 규정에 따라 표기된 것은? [3점]

<보기>

제23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붙임]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① 오뚜기, 개구리
② 더펄이, 꽹과리
③ 깔쭈기, 깍두기
④ 홀쭉이, 얼룩이
⑤ 삐주기, 누덕이

3. 국어 생활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① 문: '부끄러워 않다'가 맞는 말인가요, '부끄러워하지 않다'가 맞는 말인가요?
답: 보조 용언 '않다'는 형용사, 동사 뒤에서 부정 표현에 쓰이므로, 형용사인 '부끄럽다'의 부정은 '부끄러워 않다'와 '부끄러워하지 않다'를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② 문: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를 발음할 때 [안녕히]와 [안녕이] 중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답: 한자어나 복합어에서 모음과 'ㅎ' 또는 'ㄴ, ㅁ, ㅇ, ㄹ'과 'ㅎ'이 결합된 경우에는 '전화[저놔]'에서와 같이 'ㅎ'이 탈락한 대로 발음합니다. 이에 따라 '안녕히'는 [안녕이]로 발음합니다.

③ 문: "벌에 쏘였다."가 맞습니까, "벌에 쐬었다."가 맞습니까?
답: 피동사 '쏘이다'의 어간 '쏘이-' 뒤에 어미 '-었-'이 붙으면, 줄여서 '쏘였-'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쏘이었다'의 준말로 '쏘였다'만이 가능합니다.

④ 문: '시래기죽'이 맞나요, '시래깃죽'이 맞나요?
답: '시래기'와 '죽'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이 말이 [시래기쭉/시래긷쭉]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 규정에 따라 사이시옷을 받치어 '시래깃죽'과 같이 적습니다.

⑤ 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라는 표현은 예의가 없어 보이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라는 표현이 맞는지요?
답: '이 정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다.'와 같은 문장에서의 주체인 '이 정보'는 높일 대상이 아니어서 서술어에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시-'를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가 맞습니다.

4. 부사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런 일은 결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② 잠을 깬 사람은 절대로 나만이 아니었다.
③ 그가 남긴 작품은 비단 이 그림 한 가지뿐이었다.
④ 석이는 오직 고개를 저을 뿐 아무 말이 없었다.
⑤ 오늘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결승에 진출할 수 있다.

5. 타동사 '벗다'의 반의어가 아닌 것은?

① 신다 ② 붙다 ③ 지다 ④ 쓰다 ⑤ 끼다

6. <보기>의 예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가. 우리 {나중에 / 다음에} 또 봅시다.
나. 그들은 {나중을 / *다음을} 위하여 저축을 한다.
다. 이 {다음은 / *나중은} 노래할 순서이다.
라. 20 페이지 {다음은 / *나중은} 21 페이지이다.
마. 우리 집 {다음 / *나중} 집은 커다란 이층집이다.
*표는 비문법적임을 뜻함.

① '가'를 보니 '나중'과 '다음'은 전혀 다른 의미 영역을 가지고 있군.
② '나'를 보니 '나중'은 '알지 못하는 동안에 어느덧'의 의미로 쓰이네.
③ '다'를 보니 '다음'은 '이번 차례의 바로 뒤'의 의미로 쓰이네.
④ '라'를 보니 '나중'은 '다음'과는 달리 순서를 전제로 하고 있군.
⑤ '마'를 보니 '다음'은 '나란히 있는 사물의 맨 마지막 것'을 뜻하네.

7. '신입생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한다. 내용을 적절히 정리하여 구체화할 방안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먼저 예상 독자를 정해야지. 예비 대학생과 대학 신입생이 주된 독자가 되겠는걸.
② 어떤 내용을 담을까? 대학 생활에 대해 쓰는 것이니 먼저 대학의 재정 상태, 대학의 학과별 인원 등을 중요하게 다루어야겠지.

③ 글을 쓰기 위한 글감을 조사해야지. 전공별 교과 과정, 학교 편람, 대학생 동아리 안내, 장학 안내 등을 알아보아야겠군.

④ 어떻게 내용을 풀어 갈까? 고등학교와의 공부 방식의 차이, 전공별 특성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시간 활용 방법 등도 써야겠어.

⑤ 어떻게 글을 마무리할까? 전문인으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교양인으로서의 소양을 함께 갖추기 위한 대학 생활 전략이 있어야 함을 강조해야지.

8. <보기>의 (가)는 《월인석보》의 앞부분에 실린 《훈민정음》 언해본이며, (나)는 《월인석보》 권10의 일부이다.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가)

중국 소리에서의 잇소리는 치두음과 정치음이 구분됨이 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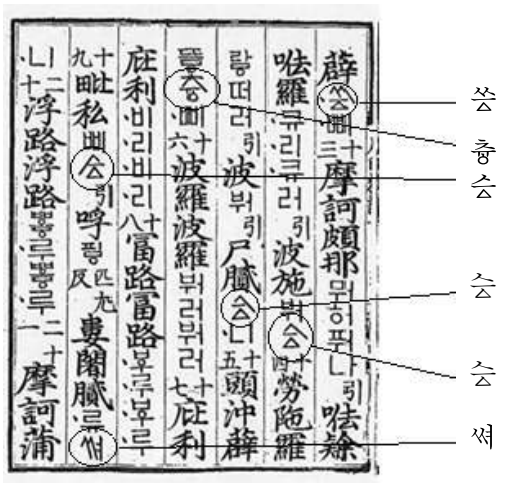
ㅈ ㅊ ㅉ ㅅ ㅆ 글자는 치두의 소리에 쓰고

ㅈ ㅊ ㅉ ㅅ ㅆ 글자는 정치의 소리에 쓰니

어금니와 혀와 입술과 목소리의 글자는 중국 소리에 통하여 쓴다.

- 《훈민정음》 언해본(현대어 역)

(나)



-《월인석보》 권10

① (가)의 'ㅈ ㅊ ㅉ ㅅ ㅆ ㅈ ㅊ ㅉ ㅅ ㅆ'와 같은 글자를 만든 것을 보니 현대 국어에는 없는 발음이 중세 국어에는 있었군.

② (나)로 미루어 보니, 《월인석보》에 (가)가 들어간 것은 《월인석보》에 사용된 글자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군.

③ 중국어의 잇소리는 중세 국어의 잇소리와 달리 두 종류로 나뉘었군.

④ 'ㅈ ㅊ ㅉ ㅅ ㅆ ㅈ ㅊ ㅉ ㅅ ㅆ'와 같은 글자는 우리말을 적기 위한 글자는 아니었군.

⑤ 창제 당시의 훈민정음은 글자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었군.

9.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그동안 비표준어로 간주되었던 '짜장면'이 표준어가 됐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일반 대중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은 '짜장면'의 표준어 결정 앞에는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여전히 표준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나 언중이 선호하는 말과 표준어 규정 안에 있으나 잘 쓰이지 않는 어휘들은 앞으로의 표준어 정책 방향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어문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 한 어문 규범의 현실화는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규정의 현실화가 어문 규정의 개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 규정 개정의 논의에서 벗어나 우리말의 다양성을 살리고 국어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표준어 확대 작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① '서럽다'와 '섧다'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② '광주리'와 '광우리'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③ '가엾다'와 '가엽다'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④ '모쪼록'과 '아무쪼록'을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⑤ '거슴츠레하다'와 '게슴츠레하다'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10. 다음 문장 중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것은?

① 지도를 사용하면 비록 초행길일지라도 쉽게 찾아갈 수 있다.

② 항상 가슴에 명심하여야 할 것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③ 하굣길에 삼촌 집에 들려서 물건을 받아 오너라.

④ 춥더라도 자주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해야 해.

⑤ 그림을 그리던지 책을 읽던지 마음대로 해도 돼.

11. <보기>는 받침의 발음에 관한 표준발음법의 규정이다. 밑줄 친 발음이 규정에 맞는 것은?

<보기>

제10항 겹받침 'ㄳ', 'ㄵ', 'ㄼ, ㄽ, ㄾ', '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다만,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고, '넓-'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

① 넓죽하다[널쭈카다]

② 외곬[외곧]

③ 없다[업 : 따]

④ 여덟[여덜]

⑤ 핥다[할따]

12. <보기>의 글에서 잘못되거나 어색한 부분을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관현악을 위한 베토벤의 작품 중에서 교향곡 ㉠못지않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서곡이다. ㉡사실 베토벤의 교향곡에 대한 현대의 평가는 '위대하다'라는 평범한 말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높다. 베토벤은 오페라를 위한 서곡, 희곡 상연을 위한 서곡, 특별한 목적을 위한 연주회용 서곡 등 총 11곡의 서곡을 작곡했다. 그중에서도 <에그몬트>, <코리올란>, <레오노레 제3번>, <휘델리오> 이 4곡은 고금의 명곡으로서, 희곡이나 오페라의 내용과 정신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중에도 음악적으로도 매우 훌륭하다.

그중에서 <에그몬트> 서곡은 괴테가 쓴 5막의 비극 <에그몬트>에 붙은 부수 음악이다. ㉣그렇지만 이 음악은 베토벤이 40세가 되던 1810년 5월에 완성되었다. 이 부수 음악은 서곡을 포함해서 전 10곡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서곡이 뛰어나므로 오늘날에 와서는 이 서곡만이 곧잘 연주회의 프로그램에 오른다. 이 곡은 비극적인 서주를 지닌 소나타 형식이며, 강인한 모습 속에 따뜻한 애정을 간직한 에그몬트 백작의 성격을 절묘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① ㉠은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으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② ㉡은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바로 뒤의 문장과 위치를 바꾼다.

③ ㉢은 뒷부분의 의미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표현할 뿐 아니라'로 바꾼다.

④ ㉣은 문맥을 고려하여 '그래서'로 바꾼다.

⑤ ㉤은 문장의 호응관계를 고려하여 '나타내게 하였다.'로 수정한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4년 초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혜성 '빌트2'에서 나온 우주 먼지를 포획하는 임무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초속 50km로 움직이는 미세한 우주 먼지를 원형 그대로 붙잡기 위해서는 특별한 고안이 필요했다. 딱딱한 도구로 우주 먼지를 붙잡으려 하면 우주 먼지가 으스러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택된 것은 거품 형태의 물질이었다. '실리카에어로겔'이라 불리는 이 물질은 1㎤ 안에 수십 억 개의 자잘한 그물망이 거품 모양으로 엉켜 있어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 먼지들을 낱낱이 거품 속으로 파고들게 해서 붙잡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 실리카에어로겔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물질의 출발점은 젤리였다. 1930년대 사무엘 키스틀러는 젤라틴에 과즙 따위의 액체를 넣어 만든 젤리가 찰랑거리면서도 형체를 유지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액체가 젤라틴으로 된 아주 가는 그물망 속에 가두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젤라틴은 원래 고체이지만 물 같은 액체에 닿으면 분자 결합이 느슨하게 풀려서 그물을 이루고 그 안에 물을 가두게 된다. 그물 안의 액체는 표면장력 때문에 바깥으로 새지 않는데, 이 상태에서 부드럽게 흔들면 젤리 전체가 찰랑거리게 된다.

그러나 키스틀러는 이 정도의 결론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다소 엉뚱한 상상을 했는데, 액체를 빼서 젤라틴 그물망만 남기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액체가 증발하는 미약한 힘에도 젤라틴 그물망이 쉽게 쪼그라들어 버린다는 데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물보다 쉽게 기화하는 알코올을 넣은 젤리를 압력 용기에 넣고 용기를 가열하여 끓는점을 넘도록 해서 젤리 속 액체가 그대로 기체가 되게 했다. 이는 기체와 액체가 같은 밀도와 구조를 이루어 서로 차이가 없어지는 온도, 곧 '임계온도'를 넘기면 액체가 영구기체(아무리 온도를 내리고 압력을 높여도 액체가 되지 않는 기체)가 되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이후 젤리에서 천천히 기체가 빠져나오게 하면 젤라틴 그물은 젤리였을 때의 모양대로 유지된다. 이로써 키스틀러는 ㉠젤라틴 겔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더 나아가 그는 젤라틴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도 겔을 만들고 싶어 했다. 그는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산화 알루미늄, 니트로셀룰로오스, 달걀의 알부민 등으로 겔을 만들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리의 주재료인 이산화규소(실리카)로 만든 겔이었다. 이 ㉡실리카에어로겔은 젤라틴 겔보다 단단하고 가벼웠다. 공기가 전체 부피의 99.8%를 차지하는,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고체였다.

실리카에어로겔을 보면 아주 이상하게 느껴진다. 빛이 약한 곳에 두면 푸른 빛으로 보이고 밝은 곳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 겔이 푸른 빛으로 보이는 것은 빛이 공기에 부딪혀 꺾이는 '레일리 산란' 현상 때문이다. 이 현상은 하늘에서 볼 수 있는데, 파장이 짧은 푸른 빛이 노랑이나 빨강 빛보다 더 많이 꺾이기 때문에 하늘이 푸르게 보이는 것이다. 물론 레일리 산란 현상을 보려면 하늘처럼 엄청난 양의 공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적은 양의 공기가 천문학적인 수의 작은 내부 표면을 지닌 투명한 물질에 갇히게 되면 레일리 산란이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 빛의 색이 변할 수 있다. 이것이 실리카에어로겔이 푸르게 보이는 이유이다.

키스틀러는 실리카에어로겔의 쓰임새를 단열재로 보았다. 이 겔이 많은 겹의 유리층과 공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유리창을 약간씩 띄워서 겹겹이 배치하면 단열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물론 실제 유리창을 그렇게 배치하면 무겁고 거대해져서 별 효용이 없는 반면, 실리카에어로겔은 작고 가벼우면서도 단열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1930년대는 아직 단열에 관심이 없는 시대였고, 만드는 비용도 비쌌기에 실리카에어로겔은 곧 잊히고 말았다.

그러나 키스틀러가 죽은 지 한참 뒤인 1990년대 후반에 우주선 단열재로 이 겔이 선택되었다. 매우 가볍고 단열 효과는 최고이기에, 무게를 줄여야 하고 극단적으로 높고 낮은 외부 온도에도 견뎌야 하는 우주선에 딱 들어맞는 소재였던 것이다. 그 다음의 쓰임새가 우주 먼지 포획이었다. 이후 과학자들은 실리카에어로겔이 포획한 혜성의 우주 먼지를 분석하여 태양계 형성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다.

1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u>않는</u> 것은?

① 우주선은 부피가 작고 고온에 잘 견디게 만든다.
② 표면장력이 젤리의 형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③ 비용 문제로 실리카에어로겔은 건축에서 외면당했다.
④ 혜성의 우주 먼지는 태양계 형성 연구의 재료가 된다.
⑤ 키스틀러는 자신의 발명품이 실용적 용도가 있다고 보았다.

14. ㉠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건고하지 않아서 충격에 약하다.
② 전체적으로 커다란 거품의 모양이다.
③ 속에 든 액체를 빼는 과정을 거쳐 만든다.
④ 적절한 열과 압력을 이용하여 만들어진다.
⑤ 액체에 닿아서 분자 결합이 변화한 결과이다.

15. ㉡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① 유리 성분이 주원료이므로 젤라틴 겔보다 형태 보존성이 좋다.
② 액체가 임계온도를 넘기면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③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들을 한곳으로 모아서 원형 그대로 붙잡을 수 있다.
④ 고체 형태보다 그 속에 포함된 기체의 부피가 훨씬 커서 보기보다 매우 가볍게 느껴진다.
⑤ 유리창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겹겹이 배치할 때와 같은 단열 효과를 효율적으로 낼 수 있다.

16.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과일 젤리를 가열하면 세밀한 그물망이 쭈그러들게 될 것이다.
② 알코올을 임계온도에 다다르게 하는 것은 물의 경우보다 쉬울 것이다.
③ 알부민으로 겔을 만들면 거품들이 뭉쳐진 모양으로 그물망이 형성될 것이다.
④ 상온에서도 실리카에어로겔 안에 들어 있던 영구기체는 액화되지 않을 것이다.
⑤ 빛을 세게 쪼이면 빛의 꺾임 현상이 겔 안에서 크게 일어나 푸르게 보일 것이다.

[17~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가운 비(碑)ㅅ돌을 세우지 말라.
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u>노오란 해바라기</u>를 심어 달라.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 달라.
노오란 해바라기는 늘 태양같이 태양같이 하던 화려한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라.
푸른 보리밭 사이로 ㉡<u>하늘을 쏘는 노고지리</u>가 있거든 아직도 날아오르는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라.
-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청년 화가 L을 위하여」

(나)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懷疑)를 구(救)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愛憎)을 다 짐 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u>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沙漠)</u>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번 뜬 백일(白日)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永劫)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神)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그 열렬한 고독(孤獨)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對面)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u>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u>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회한 없는 백골(白骨)을 쪼이리라.
- 유치환, 「생명의 서」

(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木手)네 집 헌 삿을 깐,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u>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u>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딜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재 위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두 않구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쌔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꽉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u>더 크고, 높은 것</u>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줏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섶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17. (가)~(다)의 시적 화자가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는 삶을 사랑과 꿈으로 채우려 하는 반면, (나)는 시련과 고뇌로 채우려 한다.
② (가)는 삶에 대한 희망적 태도를 보여 주는 반면, (다)는 삶에 대한 절망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③ (나)는 (다)와 달리 삶에서 겪는 고난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다)는 (가)와 달리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⑤ (가), (나), (다) 모두 삶을 보다 의미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모색하고 있다.

18. (가)~(다)의 시적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는 강렬한 색채 심상을 통해 시적 화자의 소망을 말하고 있다.
② (나)는 시적 허용의 수법으로 시적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③ (다)는 호흡이 긴 문장으로 시적 화자의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④ (가)와 (나)는 슬프고도 장엄한 어조로, (다)는 사색적인 어조로 말하고 있다.
⑤ (가), (나), (다) 모두 직유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9. 시적 맥락을 고려할 때, ㉠~㉤ 중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20.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는 비현실성을 띠는 공간이다.
② ⓐ는 자아의 본질을 제대로 탐색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③ ⓑ는 시적 화자의 처지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④ ⓑ는 시대적 불의에 항거하는 원동력이 된다.
⑤ ⓐ와 ⓑ 모두 정신적인 재탄생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21. (다)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대립적인 상징을 통해 사회적인 갈등을 내면화하여 성찰하고 있다.
② 편지 형식으로 자신의 삶을 반추함으로써 주어진 운명에 항거하고 있다.
③ 시적 화자가 겪은 사건을 구체화하여 예전의 상황을 상세하게 보여 주고 있다.
④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적 화자가 처음 상태로 회귀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⑤ 시적 화자의 신체적 자세 변화를 통해 현실을 대하는 정신적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종묘는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神主)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다. 사직은 토지의 신인 사(社)와 곡식의 신인 직(稷)에게 국가의 안녕과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는 곳이다. 따라서 종묘와 사직은 모두 국가에서 주관하는 제사를 시행하던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조선 시대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여러 제사들을 제사 대상의 격에 따라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로 등급을 나누었는데, 종묘와 사직에서 지내는 제사는 모두 대사로 규정되었다.

종묘와 사직이 조선에만 있었던 제도는 아니다. 유교 경전의 하나인 『주례(周禮)』에는 종묘와 사직에 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수도를 건설할 때 "종묘는 궁궐의 왼쪽에 세우고 사직은 궁궐의 오른쪽에 세운다."라는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동아시아의 전통 시대에는 군주가 궁궐 안에서 남쪽을 향해 앉아서 정치를 한다는 관념이 있었는데 이를 '남면(南面)'이라고 한다. 『주례』에서 말하는 '궁궐의 왼쪽과 오른쪽'은 곧 궁궐 안의 국왕이 남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할 때의 왼쪽과 오른쪽을 말한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서울의 옛 지도를 볼 때 생각하는 좌우 개념과는 반대가 된다. 『주례』의 이 조항은 종묘와 사직의 건설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유교 경전에 종묘와 사직에 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은 종묘와 사직이 전통 시대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권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제도였음을 보여 준다.

종묘와 사직은 유교 문화의 핵심이 고스란히 농축되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전통 시대 유교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 즉 사람이 가정과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도리를 잘 준수하는 것이었다. 유교 윤리의 핵심은 '삼강(三綱)'과 '오륜(五倫)'으로 집약될 수 있는데, 이 삼강오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효(孝)'와 '충(忠)'이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효가 사회·국가적 차원으로 확장된 것이 충이라는 점에서 가장 궁극적인 유교 윤리의 정수는 바로 '효'라고 할 수 있다.

부모에 대한 효를 실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통 시대에 매우 중시되었던 효의 실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제사'였다. 돌아가신 부모와 선조에 대해 살아 계실 때에 정성을 쏟았던 것과 같이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림으로써 효를

실천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종묘 제사는 국왕이 자신의 선조인 역대 국왕과 왕비에 대한 효를 실천하는 통로였다. 따라서 종묘는 제사를 통해 효 윤리가 실현되었던 유교적 문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직은 유교 문화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 국가는 백성, 즉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데, 사람은 토지가 없으면 살 곳이 없고 곡식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다. 따라서 전통 시대에 토지와 곡식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었다. 이에 나라를 다스리는 국왕은 반드시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올려 백성들이 깃들어 살 수 있게 해 주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토지와 곡식의 공덕에 보답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나라 안의 토지는 광활하기 때문에 모든 땅에 대해 공경을 표할 수 없고, 곡식은 종류가 많아서 모든 곡식에 두루 제사를 올릴 수 없었다. 그래서 대신 흙을 쌓아, '사단(社壇)'을 만들어서 토지의 공에 보답하고 '직단(稷壇)'을 세워 곡식의 공에 감사했던 것이다. 이것이 전통 시대 유교 문화권의 여러 나라들이 사직단을 조성했던 이유이다. 사직은 전통 시대 국가에서 농업이 갖는 중요성과 경제적 민생 안정을 위한 국왕의 책무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종묘와 사직에서의 제사는 엄정한 의식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제사를 거행할 때는 반드시 음악이 연주되었다. 즉, '예(禮)'와 '악(樂)'이라는 유교 문화의 원칙에 따라 제사가 거행되었던 것이다. 국왕이 직접 주관하는 친제(親祭)는 말할 것도 없고 왕세자나 신하가 대신 거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왕이었다. 특히 종묘 제사는 국왕과 혈연관계가 있는 역대 국왕과 왕비에 대한 제사라는 점에서 왕실 의례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종묘와 사직의 제사 의례에는 왕실 문화의 모습도 담겨 있다. 이처럼 종묘와 사직은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와 왕실 문화 그리고 농업 사회적 특징이 종합적으로 깃들어 있는 문화 공간이었다.

동아시아의 각 나라들은 농업 경제에 기초한 유교 문화권이라는 점을 기본적으로 공유하면서 한편으로는 각국의 현실적인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따라서 조선의 종묘와 사직은 동아시아의 보편적 문화와 더불어 조선만의 독특한 유교 문화, 왕실 문화, 농경문화가 집약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조선의 종묘와 사직은 조선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관문이 될 수 있다.

2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삼강오륜이라는 유교의 핵심적인 윤리는 종묘에서 구현되었다.
② 종묘와 사직은 동아시아의 보편성과 조선의 특수성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③ 종묘와 사직은 국가적 차원의 제사를 시행하던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④ 남면하여 정치하는 국왕의 입장에서 왼쪽에 종묘를, 오른쪽에 사직을 두었다.
⑤ 왕실 문화에 기초한 사직은 제사를 유교 윤리의 실현에 맞게 개편한 것이다.

23. ㉠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모는 자식에게, 국왕은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존재이다.
② 자식은 부모의 혈육이기도 하지만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다.
③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국왕과 백성의 관계로 치환될 수 있다.
④ 부모는 자식에 대해, 국왕은 백성에 대해 군림하는 존재이다.
⑤ 부모에 대한 소임을 다하는 자식처럼 국왕에 대해 백성도 그렇게 할 수 있다.

24. ㉡과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종묘 제례악은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기악, 노래, 춤을 갖추고 종묘 제례 의식에 맞추어 연행하는 음악이다. 제례가 진행되는 동안 절차에 따라 <보태평>과 <정대업>이 연주된다.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 문무(文舞)와 무무(武舞)가 곁들여진다. 문무는 역대 선왕의 문덕을 기리는 춤이고 무무는 선왕들의 무공을 칭송하는 춤이다. 이 음악은 편종, 편경 등 타악기의 선율에 당피리, 대금 등 관현악기의 장식적인 선율이 더해진 것이다. 또한 장구, 징, 태평소 등의 악기가 다양한 가락을 구사하여 특유의 중후함과 화려함을 준다. 중간 중간에 울리는 박(拍) 소리는 종묘 제례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① 종묘에서 연주하는 음악은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다.
② 종묘의 음악은 선왕들의 학문과 예술을 형상화한 것이다.
③ 음악의 감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악 사상이 도입되었다.
④ 종묘의 음악을 올바로 연주하려면 예의 관념이 투철해야 한다.
⑤ 종묘 음악은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여 유교 문화의 원칙을 충실히 구현한다.

[25～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生死路(생사로)는
㉠예 이샤매 저히고
나는 가ᄂᆞ다 말ᄉᆞ도
몯다 닏고 가ᄂᆞ닛고
어느 ᄀᆞ술 이른 ᄇᆞᄅᆞ매
이에 저에 ᄠᅥ딜 ㉡닏다이
ᄒᆞ돈 가재 나고
가논 곧 모ᄃᆞ온뎌
아으 彌陀刹(미타찰)애 맛보올 내
道(도) 닷가 기드리고다
- 월명, 「제망매가」(양주동 해독)

(나)
이 몸이 죽어 가셔 무어시 될고 ᄒᆞ니
蓬萊山(봉래산) 第一峰(제일봉)에 ㉢落落長松(낙락장송) 되야 이셔
白雪(백설)이 滿乾坤(만건곤)홀 제 獨也靑靑(독야청청)ᄒᆞ리라
- 성삼문의 시조

(다)
양전(兩殿)마마가 한날한시에 몽사(夢事)를 얻으시니
대명전 들보에서 여섯 청의동자가 날아와서 일시에 읍하거늘,
"네가 사람이냐 귀신이냐?
나는 새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인데 어찌하여 들어왔느냐?"

"인간 사람도 아니옵고 귀신도 아니옵고
하늘의 청의동자로서 옥황상제의 명령으로
국왕 전하의 명패를 풍도 섬에 가두러 왔나이다."
"그는 어찌하여 그러하냐?
신하 중에 원책이 있다더냐? 만민 중에 원민이 있다더냐?"
"원책, 원민이 아니오라, 하늘이 아는 아기를 내다 버리신 죄로
ⓐ한날한시에 문안 드시면은 한날한시에 승하하시리다."
"그러면 내 어찌 회춘(回春)하리오?"
"버린 아기를 찾아 들여, 삼신산 불사약 무상신(無上神) 약령수(藥靈水) 동해 용왕 비례주(珠) 봉래산 가얌초(草) 안아산 수리취를 구해다 잡수시면 회춘하시리다."
깜짝 놀라 깨니 남가일몽(南柯一夢)이라.

(중략)

대왕마마 병환이 위중하옵시니
"만조백관, 시녀, 백성들아, 무상신 약령수를 얻어다가 국가 보존할쏘냐?"
"이승 약이 아니온데 어찌 얻을 수 있사오리까?"

(중략)

버려졌던 칠 공주 불러내어,
"부모 소양[효양(孝養)] 가려느냐?"
ⓑ"국가에 은혜와 신세는 안 졌지마는
어마마마 배 안에 열 달 들어 있던 공으로 소녀 가오리다."
"거둥 시위(侍衛)로 하여 주랴? 구슬 덩, 사(紗) 덩을 주랴?"
"필마단기(匹馬單騎)로 가겠나이다."
사승포(四升布) 고의적삼, 오승포 두루마기 짓고
쌍상투 짜고, 세(細)패랭이 닷 죽, 무쇠 주령 짚으시고
은 지게에 금줄 걸어 메이시고
ⓒ양전마마 수결(手決) 받아 바지 끈에 매이시고
"여섯 형님이여, 삼천 궁녀들아,
대왕 양마마님께서 한날한시에 승하하실지라도
나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인산(因山) 거둥 내지 마라."

(중략)

아기[칠 공주]가 한곳을 바라보니
동에는 청 유리 장문이 서 있고 서에는 백 유리 장문이 서 있고
남에는 홍 유리 장문이 서 있고 북에는 흑 유리 장문이 서 있고
한가운데는 정렬문이 서 있는데 무상 신선(無上神仙)이 서 계시다.
ⓓ키는 하늘에 닿은 듯하고 얼굴은 쟁반만 하고 눈은 등잔만 하고 코는 질병 매달린 것 같고 손은 소댕만 하고 발은 석자 세 치라.
하도 무서웁고 끔찍하여 물러나 삼배를 드리니
무상 신선 하는 말이,
"그대가 사람이뇨? 귀신이뇨?
날짐승 길버러지도 못 들어오는 곳에
어떻게 들어왔으며 어디서 왔느뇨?"
"나는 국왕마마의 세자로서 부모 봉양 왔나이다."
"부모 봉양 왔으면은 물값 가지고 왔소? 나무값 가지고 왔소?"
"총망 길에 잊었나이다."
ⓔ"물 삼 년 길어 주소. 불 삼 년 때어 주소. 나무 삼 년 베어 주소."

- 작자 미상, 「바리공주」

25.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극적인 전환을 통해 미적 쾌감을 불러일으킨다.
② 인물과 배경이 설정되어 사건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각 행의 율격이 일정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을 준다.
④ 이승의 삶 이후 상황을 상정하고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⑤ 밝고 동적인 이미지와 어둡고 정적인 이미지가 대비되어 있다.

26. (나)와 <보기>의 시적 화자의 태도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내 님믈 그리ᄉᆞ와 우니다니
山(산)졉동새 난 이슷ᄒᆞ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ᄃᆞᆯ 아으
殘月曉星(잔월효성)이 아ᄅᆞ시리이다
넉시라도 님은 ᄒᆞᆫᄃᆡ 녀져라 아으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過(과)도 허믈도 千萬(천만) 업소이다
ᄆᆞᆯ힛마러신뎌 ᄉᆞᆯ읏븐뎌 아으
니미 나ᄅᆞᆯ ᄒᆞ마 니ᄌᆞ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 정서, 「정과정」

① (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이 넘치는 데 비해, <보기>는 미래를 우울하게 관망하고 있다.
② (나)는 자신의 의지를 실제로 구현하고자 하는 데 비해, <보기>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여 표현하고 있다.
③ (나)는 자신의 현실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데 비해, <보기>는 시적 대상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④ (나)는 자연의 좋은 풍광 속에서 위안을 얻는 데 비해, <보기>는 자연 속에서 물아일체의 삶을 동경하고 있다.
⑤ (나)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세상을 추구하는 데 비해, <보기>는 문제를 해결한 후 지위의 상승을 추구하고 있다.

27. <보기>의 설명을 참조하여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의 향찰 원문은 '此矣有阿米次肹伊遣'이다. 이에 대한 해독에서 학자 사이에 이견이 있다. 양주동은 '예 이샤매 저히고'로, 김완진은 '이에 이샤매 머믓그리고'로 해독하였다.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와 우리말을 기록한 향찰에 대해 음독과 훈독의 선택에 따라 서로 다른 해독이 나왔다.

① ㉠은 향찰에 대한 해독자의 관점이 반영되어 나온 것이다.
② ㉠은 차자(借字) 표기인 향찰로 기록된 것을 우리말로 해독한 것이다.
③ ㉠의 '예'는 '이에'와 같이 두 음절로도 해독할 수 있다.
④ ㉠의 '이샤매'는 이론의 여지가 많지 않은 해독이다.
⑤ ㉠의 '저히고'는 '머믓그리고'로 달리 해독되기도 하지만 뜻은 같다.

28. 문맥상 ㉡과 ㉢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과 ㉢ 모두 식물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② ㉡과 ㉢ 모두 원관념에 대한 보조 관념에 해당한다.
③ ㉡에는 ㉢에 비해 더 능동적인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④ ㉡에는 ㉢에 비해 사물의 동적인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⑤ ㉢은 ㉡에 비해 사물의 색채 이미지가 시상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하늘이 내리신 아기를 버린 죄로 양전마마가 동시에 죽게 된다는 뜻이다.
② ⓑ: 부모에게 버림받은 원망을 묻어 둔 채 효행의 길을 나서겠다는 뜻이다.
③ ⓒ: 왕과 왕비의 명령과 결정에 의한 행동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말이다.
④ ⓓ: 사람에게 두려우면서도 친근한 느낌을 주는 겉모습을 형용한 말이다.
⑤ ⓔ: 부모 봉양을 위해 희생해야 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u>맹자</u>가 말씀하였다.

"우산(牛山)의 나무가 일찍이 아름다웠는데 대국의 교외이기 때문에 도끼와 자귀로 매일 나무를 베어 가니 재목이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낮과 밤에 자라남과 우로(雨露)가 적셔 줌으로 싹이 나오는 것이 없지 않지마는 또 소와 양이 뒤이어 방목됨으로써 저와 같이 헐벗게 되었다. 사람들은 우산이 헐벗은 것을 보고 그곳에는 일찍이 훌륭한 재목이 있지 않았다고 여기니, 이것이 어찌 우산의 본성이겠는가.

사람에게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서 어찌 인의(仁義)의 마음이 없으리오. 그렇지만 그 양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도끼와 자귀로 아침마다 나무를 베어 가는 것과 같으니, 이렇게 하고서도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낮과 밤에 자라남과 새벽녘의 기운을 받음에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함이 사람들 사이에 근접한 것이 얼마 되지 않는데, 낮에 하는 소행이 이것조차 질곡(桎梏)하여 없어지게 하는 것이다. 질곡하여 이랬다저랬다 반복하면 밤의 기운이 보존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금수(禽獸)와의 거리가 멀지 않으리라. 사람들은 그 금수 같은 것을 보고 일찍이 훌륭한 재질(材質)이 있지 않았다고 여기니, 이것이 어찌 사람의 실정이겠는가.

그러므로 만약 잘 기를 수 있으면 사물마다 자라나지 않는 것이 없고, 만약 기르지 않으면 사물마다 없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공자가 말씀하기를, '잡으면 보존되고 놓아 버리면 없어져서 나가고 들어옴이 일정한 때가 없어 방향을 알 수 없는 것이 오직 사람의 마음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주자가 말씀하였다.

"'양심'이란 본연의 선한 마음이니 곧 이른바 인의지심(仁義之心)이란 것이다. '새벽녘의 기운'이란 사물과 접하지 않았을 때의 청명한 기운을 이른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함이 사람들 사이에 근접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똑같이 옳게 여기는 바를 말한다. '얼마 되지 않음'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질곡'은 형틀이다. '이랬다저랬다 반복함'은 말이나 행동을 이랬다저랬다 하며 자꾸 되풀이함이다.

사람의 양심이 이미 방실(放失)되었으나 낮과 밤의 때에 또한 반드시 자라나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새벽녘에 사물과 접하지 않아서 그 기운이 청명할 때에는 이 양심이 반드시 발현되는 것이 있다. 다만 그 발현됨이 지극히 미미한데 낮에 행하는 불선(不善)이 잇따라서 질곡하여 없어지게 하니, 이것은 마치 산의 나무를 이미 베어 갔으나 오히려 싹이 돋아났는데 또 소와 양이 뒤미처 방목되는 것과 같다. 낮에 하는 소행이 불길같이 성하게 일어나면 반드시 밤에 자라나는 바를 해치고, 밤에 자라나는 바가 적어지면 또 낮에 하는 나쁜 행위를 이기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이랬다저랬다 반복하며 서로 해쳐서 새벽녘의 기운도 청명하지 못해서 인의의 양심을 보존할 수 없는 데에 이른다."

또 말씀하였다.

"공자가 말씀하기를, '마음을 잡으면 여기에 있고 놓으면 잃어버려서, 나가고 들어옴이 일정한 때가 없고 또한 정처(定處)가 없다.'고 하였다. 맹자가 이를 인용하여 마음이 신명(神明)하고 측량할 수 없어 위태롭게 움직여 편안하기 어려움이 이와 같으니, 잠시라도 기르지 않아서는 안 됨을 밝힌 것이다."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마음이 어찌 나가고 들어옴이 있겠는가. 잡음과 놓음을 가지고 말씀하였을 뿐이니, 마음을 잡는 방법은 공경하여 그것을 곧게 하는 것일 따름이다."

스승에게 들으니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이 장의 뜻이 가장 요긴하고 절실하니 배우는 자들은 마땅히 익숙하게 음미하고 깊이 살펴야 할 것이다."

[부주(附註)]

범순부의 딸이 『맹자』의 「조존장(操存章)」을 읽고 말하기를, "맹자는 마음을 모르셨다. 마음이 어찌 나가고 들어옴이 있겠는가."라고 했는데, 이천(伊川) 선생은 그 말을 듣고 말씀하기를, "이 여자가 비록 맹자는 몰랐으나 도리어 마음은 알았다."라고 하였다.

30. 윗글에 나온 인물들의 발언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① 공자: 사람의 마음은 잡아 두지 않으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른다.
② 맹자: 사람이 낮 동안에 행하는 행위가 마음의 본성을 잃도록 만든다.
③ 주자: 청명한 기운으로 양심이 일어나면 나쁜 행위는 저절로 사라진다.
④ 정자: 공경하여 마음을 곧게 하는 것이 마음을 잡는 방법이다.
⑤ 범순부의 딸: 마음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31. ㉠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장에 상응하는 비유를 사용하여 설득하고 있다.
② 여러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을 구체화하고 있다.
③ 조목별로 제시한 근거들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고 있다.
④ 주장을 실천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⑤ 주장을 먼저 내세운 다음,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2. 윗글의 내용을 실천한 옛 선비들의 사례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실행에 옮기고자 하였다.
② 본래의 마음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려 하였다.
③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면서 항상 의식이 깨어 있고자 하였다.
④ 모든 일에 대해 공경하는 자세로 마음을 바르게 갖고자 하였다.
⑤ 혼자 있을 때에도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조심하고 삼갔다.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 한림은 입궐하고 집이 고요한데 사 부인이 홀로 책상을 의지하여 고서(古書)를 보더니, 시비 춘낭이 아뢰었다.

"화원의 작은 정자에 모란꽃이 성히 피었사오니 한번 구경하소서."

부인이 즉시 책을 덮고 시비 5, 6인을 데리고 정자에 이르렀다. 버드나무 그늘은 난간을 가리고 꽃향기는 옷에 스미니 짐짓 아름다운 경치였다. 사 부인이 시비를 명하여 교씨를 청하여 봄 경치를 구경하고자 하더니, 문득 바람결에 거문고 타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맑고 처절하여 진주가 옥쟁반에 구르는 듯하여 사람의 마음을 요동하였다. 좌우에게 물었다.

"이 거문고를 누가 타느냐?"

시비가 대답하였다.

"교 낭자의 재주로소이다."

"교씨가 음률을 알더냐?"

"백자당이 정당과 거리가 멀어 부인은 모르시려니와 저희는 종종 낭자의 거문고 타고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할 즈음에 거문고 소리 그치고 고운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늘, 부인이 고개를 숙이고 듣다가 한참 후 시비 춘낭에게 말을 전하도록 하였다.

"마침 일이 없어 화원에 이르러 풍경을 구경하더니 낭자는 한걸음을 아끼지 말라."

교씨가 놀라 즉시 왔다. 부인이 자리를 주고 함께 꽃을 구경하며 차를 마셨다. 부인이 교씨에게 말했다.

"낭자가 재주 많은 줄은 알았거니와 음률에 정통함은 몰랐더니, 아까 거문고 소리를 들으니 족히 채문희로 하여금 홀로 아름답다 하지 못하리로다."

교씨가 대답하였다.

"천한 재주에 무엇을 잘하리까마는 심심하였으므로 혼자 즐기더니, 부인이 들어 계시니 황공하옵니다."

"내가 낭자로 더불어 정이 가슴속에 있고 의는 붕우(朋友)라. 한마디를 하고자 하나니 어떠한가?"

"부인의 가르치심이 있사오면 천첩의 다행일까 하나이다."

[A] "낭자가 탄 곡조는 당나라 시절 <예상우의곡>이라. 이 곡조를 요즘 사람이 많이 타나 실은 당 현종이 서촉(西蜀) 지방으로 도망하고 양 귀비가 마외의 역에서 죽어 비웃음이 후세에 그치지 않았으니, 이는 망국의 음악이라 본디 취할 것이 아니네. 또 그대의 거문고 소리와 노랫소를 원근 사람이 들으면 여자의 도리에 합당하지 못할 것이네. 그대가 어질므로 도리를 행하여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엄히 가르치며 하인을 은혜로 다스리면, 이 반드시 여자의 덕행이니 남자라도 거문고를 타는 것은 바르지 못한 사람이 하는 바이라. 그대가 어진 도리로 잠시의 과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매 내가 그대의 어짊을 아름다이 여겨 이르나니 너무 허물하지 말게나."

㉠"<u>소첩이 배운 것이 적어 잘못함을 깨닫지 못하였더니, 부인께서 이르시니 가슴에 새겨 잊지 않으리다.</u>"

부인이 또 교씨를 위로하여 말하였다.

"내가 낭자를 사랑하는 까닭에 심곡(心曲)을 감추지 못한 것이니 이후에 나의 허물이 있거든 또한 일러 깨닫게 하게."

그러고는 종일토록 담소하다가 자리를 파하였다.

유 한림이 조정의 일을 마친 후 백자당에 이르렀다. 술이 취하여 자지 못하고 난간에 기대어 주위를 완상하니 달빛은 낮과 같고 꽃 그림자가 하늘거렸다. 호탕한 흥이 일어나 교씨를 명하여 노래를 부르라고 하였다. ㉡<u>교씨</u>가 말하였다.

"찬바람에 몸이 아파 부르지 못하나이다."

"여자의 도리는 남편의 명을 따르는 것이거늘, 내가 노래를 부르라 하였더니 핑계를 대니 여자의 도리 아니라."

"아까 심심하기로 노래를 불렀더니 부인이 듣고 불러 책망하되, '네가 요괴로운 노래로 집안을 어지럽히고 한림을 미혹하게 하는구나. 이후에 또 부르면 내게 혀를 끊는 칼도 있고 벙어리 되는 약도 있으니 이후로는 삼가고 조심하라.' 하셨나이다. 첩이 본래 빈한한 계집으로 상공의 은혜를 입어 부귀영화가 이와 같으니 비록 죽으나 한이 없을 것이로되, 다만 상공의 청덕이 첩으로 인하여 흠사(欠事)가 될까 하나이다."

한림이 크게 경아(驚訝)하여 마음속으로 생각하되,

㉢<u>'저가 항상 투기를 않노라 하고 교씨 대접하기를 후하게 하여 교씨의 단점을 이른 적이 없더니, 이제 교씨의 말을 들으니 집안에 무슨 연고가 있도다.'</u>

- 김만중, 「사씨남정기」

33. 윗글에 나오는 인물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사 부인과 교씨는 유 한림에게 처와 첩인 관계이다.
② 사 부인과 교씨는 서로에게 말하는 어투에 차이가 있는 관계이다.
③ 교씨는 유 한림과 사 부인 앞에서 공손하게 대하는 관계에 있다.
④ 유 한림은 사 부인에게 친근하고 교씨와 거리를 두는 관계에 있다.
⑤ 춘낭은 사 부인과 교씨 중에서 사 부인을 주인으로 모시는 관계에 있다.

34. [A]에 나타난 사 부인의 음악에 대한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음악의 유래를 알고 즐긴다.
② 음악에 심취하는 것은 여자의 도리에 합당하지 않다.
③ 사람의 감정을 숨김없이 표현한 음악이 좋은 음악이다.
④ 혼자서 조용하게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⑤ 아내로서 남편의 즐거움을 위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필요하다.

35. 문맥상 ㉠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青山裏(청산리) 碧溪水(벽계수)ㅣ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一到滄海(일도 창해)ᄒᆞ면 다시 오기 어려오니
明月(명월)이 滿空山(만공산)ᄒᆞ니 수여 간들 엇더리
- 황진이의 시조

① ㉠은 <보기>에 비해 감정의 노출이 더욱 강하게 표현되었다.
② ㉠은 <보기>에 비해 화자의 의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③ <보기>는 ㉠에 비해 인물의 형상화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④ ㉠과 <보기>는 문면에 나타난 의미 외에 숨겨진 의미가 담겨 있다.
⑤ ㉠과 <보기>는 상대나 청자에 대해 같은 등급의 경어가 사용되었다.

36. ㉡을 비판하는 한자 성어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연목구어(緣木求魚)
② 적반하장(賊反荷杖)
③ 교언영색(巧言令色)
④ 침소봉대(針小棒大)
⑤ 표리부동(表裏不同)

37. ㉢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유 한림은 교씨의 말을 사 부인에 대한 모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② 유 한림은 교씨의 말과 태도에 대해 불신하면서도 화를 참고 있다.
③ 유 한림은 사 부인의 마음이 변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노여워하고 있다.
④ 유 한림은 사 부인의 예전의 행동과 말에 대해 의심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⑤ 유 한림은 교씨의 말과 사 부인의 말을 견주어 보아 진상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숙의*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민주주의의 질을 개선하려는 정치적 접근법의 특징을 드러낸다. 참여 그 자체를 위해 정치 참여를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 참여의 본질과 방식을 제고하는 것이 과제이다. 흔히 현대 민주주의가 대중적 유명인사 정치, 사운드 바이트** 식 논쟁, 사적 이익과 야망의 추구 등으로 전락해 버린 데 대해, 그 주창자들은 계몽된 논쟁, 이성의 공적 사용, 진리의 불편부당한 추구 등을 지지한다.

그들이 중시하는 것은 정제되고 사려 깊은 선호이다. ㉠오페와 프로이스는 '합리적인' 정치적 의사나 판단은 세 가지 기준, 즉 '사실을 중시'하고 '미래를 중시'하고 '타인을 중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정치적 판단에 결함이 있다면, 대개 이런 기준 중 어느 하나에서, 가령 무지하거나 근시안적이거나 이기적인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쟁점이 제기된다. 민주주의 이론은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여러 정치적인 선호를, 확고하게 형성된 것 또는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아니면 정치적 의사의 본질이 어떠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도록 이끌어야 하는가. 만일 후자라면 정치적 의사는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해야 하는가.

이런 논점은 사려 깊은 선호에 대한 관심이 엘리트주의적인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의 작동에 혁신적인 사고를 가져올 것인가와 관련된다. 달리 말해, 민주적인 공공선 개념은 개인들이 지닌 선호의 취합물일 뿐인가, 아니면 진지한 공적 논쟁이나 숙의를 통해 표출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오페와 프로이스는 '참여가 증가하는 만큼 합리성도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정치 참여의 범주를 확대하는 문제나 민주주의 확산의 영역들을 재고하는 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 이론의 과제가 아니다. 현재 과제는 '숙고를 거친, 사회적으로 입증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 선호가 형성되도록 장려하는 ⓑ제도나 절차의 도입'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현대 정치의 문제점은 숙의 민주주의자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피시킨은 대규모 유권자 속에서 발견되는 공적 생활에 대한 무관심, 정당 및 통치 집단의 엘리트주의 등을 비판하였다. 현대 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평등하지만 상대적으로 무능한 대중과 정치적으로 불평등하지만 상대적으로 유능한 엘리트 사이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배제된 집단의 선거권 확보같이 더 큰 평등을 향한 역사적 추세는 대규모의 불참 및 무관심을 동반하였다. 투표권이 확대되었어도 투표율은 하락해 왔고 민주적 토론은 대개 피상적이며 그 결론은 지식·정보의 부족하에 경솔하게 이루어진다. 유권자들은 소외, 이탈, 자기만족 등을 겪으면서 정치 과정에서의 단절감을 드러낸다. 정책보다 정치인에 대한 강조가 미디어에 젖은 선거판을 지배하고 사운드 바이트가 논쟁을 대신하며 유명인사의 인기가 신념에 입각한 정치 주장을 대체한다고 한다.

피시킨은 미국과 유럽을 지배하는 엘리트들이 광범위한 정치 논쟁 과정이나 문제들로부터 점점 분리된다고 한다. 정책의 원칙을 탐구하거나 정책 방향을 숙의하기보다는 기존 견해나 이해관계에 정책을 맞추려는 여론조사나 표적 집단 면접 등과 같은 마케팅 기법이 정책 과정을 엄습한다. 엘리트들은 유권자를 예측하려는 시도를 통해 정치를 운영한다. 민주주의 이론들에서 발견되는 이성, 논쟁, 불편부당성에 근거한 공적 영역의 이상은 엘리트와 정당이 여론조사에 의존하면서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숙의 민주주의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공적 숙의가 정당한 정치적 의사 결정이나 자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일군의 견해'로 정의된다. 숙의 민주주의자들은 정치적 정통성이 투표 결과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공적 결정에 대해 옹호 가능한 이유와 설명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본다. 이들의 목표는 숙의 과정을 통해 사적인 선호를 공적인 조사나 검증에 견딜 수 있는 입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코헨은, 민주적 결사체란 '결사를 맺는 계약 조건의 정당화가 공적인 논쟁과 논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속

에서 시민들은 '자유로운 공적 숙의의 틀을 자신들이 제정할 수 있는 한에서 그 제도를 정당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숙의는 어떤 우월적 규범이나 권위에 의해 제약되지 않을 때 자유로울 수 있다. 시민들은 자신의 선호를 공개적으로 정당화할 준비 없이 단순히 선호만을 표명할 수 없다. 이런 이상이 실현되려면 권력, 부, 교육 등 자원의 불평등에 따른 왜곡에 의해서가 아니라 합리적 동기에 의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정치 모델은 시민들이 형식과 실질 양면에서 평등을 누릴 것을 요구한다. 평등한 시민들 사이의 자유로운 숙의를 통해 정치적 정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설치, 조정해야 한다고 한다.

*숙의(熟議): 깊이 생각하여 의논을 거듭함.
**사운드 바이트: 정치인의 연설 중에서 뉴스 프로그램에 방송되는 짧은 한마디 문장이나 구절.

38. ㉠~㉢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 정치적 판단이 사실에 대해 무지하거나 장래의 일까지 생각하지 못한다면 결함이 있는 것이다.
② ㉠: 참여가 많을수록 합리성이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숙고를 거쳐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선호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③ ㉡: 오늘날 유권자들은 정치 과정에서의 단절감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만족을 추구한다.
④ ㉡: 현대 정치는 유권자들이 정치 과정에서 소외되고 논쟁다운 논쟁 없이 정책보다 정치인의 인기도가 정치적 주장을 대체하고 있다.
⑤ ㉢: 정책 수립에는 어떤 규범이나 권위에 의해 제약되지 않는 숙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 동기에 따른 합의가 요구된다.

39. ⓐ를 지지하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독특한 사회 관습이나 규칙, 관습적인 인간관계의 방식 등에 따라서 논쟁과 논증의 관행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② 공적 선택을 둘러싼 갈등은 인간사에서 제거될 수 없으며 이기적인 정치 행위자가 숙의를 통해 이타적 인간으로 바뀔 수 없다.
③ 어떤 사실을 적절한 것으로 간주할지는 이전의 개념 선택에 의해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에 호소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되지 못한다.
④ 불편부당함의 기준을 두고 토론하면서 좀 더 나은 결론을 추구하게 되면, 토론의 상대방이 가진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⑤ 다수파의 견해란 어느 특정 선거 시점에서 논의의 균형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보여 주는 지표일 따름이기 때문에 논의가 계속되어야 함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0. ⓑ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정한 날을 잡아 무작위로 뽑힌 시민들이 학교나 공회당에 모여 후보 선택에 대해 논의를 한다.
② 시민들에게 공적 논증과 정치적 선택에 필요한 능력을 계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③ 인터넷을 활용하여 일반 시민들에 의해 제기되고 검증된 혁신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하고자 한다.
④ 육아 설비 실태를 재검토하여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공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다.
⑤ 쟁점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를 참조하고 참가자들 간의 토의 후에 나온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여론 조사를 한다.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동안 무얼 하며 지내느냐는 원구의 물음에 동욱은 끼고 온 보자기를 끄르고 스크랩북을 펴 보이는 것이었다. 몇 장 벌컥벌컥 뒤지는데 보니, 서양 여자랑 아이들의 초상화가 드문드문 붙어 있었다. 그 견본을 가지고 미군 부대를 찾아다니며, 초상화의 주문을 맡는다는 것이었다. ㉠대학에서 영문과를 전공한 것이 아주 헛일은 아니었다고 하며 동욱은 닝글닝글 웃었다. 동욱의 그 닝글닝글한 웃음을 원구는 이전부터 몹시 꺼렸다. 상대방을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자조적이요, 어쩐지 친애감조차 느껴지는 그 닝글닝글한 웃음은, 원구에게 어떤 운명적인 중압을 암시하여 감당할 수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대체 그림은 누가 그리느냐니까, 지금 여동생 동옥이와 둘이 지내는데, 동옥은 어려서부터 그림을 좋아하더니 초상화를 곧잘 그린다는 것이다. 동옥이란 원구의 귀에도 익은 이름이었다. 소학교 시절에 동욱이네 집에 놀러 가면 그때 대여섯 살밖에 안 되는 동옥이가 귀찮게 졸졸 따라다니던 기억이 새로웠다. 동옥은 그 당시 아이들 사이에 한창 유행되었던, '중중 때때중 바랑 메고 어디 가나'를 부르고 다녔다. 그 사이 이십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보니 동옥의 모습은 전연 기억도 남지 않았다. 동욱의 말에 의하면 지난번 1·4후퇴 당시 데리고 왔는데, 요새 와서는 짐스러워 후회될 때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남편은 못 넘어왔느냐니까, 월입때 처년데, 했다. 지금 몇 살인데 미혼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원구는 혼기가 지난 동욱이나 자기 자신도 아직 독신인 걸 생각하고, 여자도 그럴 수가 있을 거라고 속으로 주억거리며 그는 입을 다물었다. 동옥의 나이가 지금 이십오륙 세가 아닐까 하고 원구는 지나간 세월과 자기 나이에 비추어 속어림으로 따져 보는 것이었다. 술에 취한 동욱은 다자꾸 원구의 어깨를 한 손으로 투덕거리며, 동옥이년이 정말 가엾어, 암만 생각해도, 그 총기며 인물이 아까워, 그런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다시 잔을 비우고 나서, 할 수 있나 모두가 운명인 걸 하고 고개를 흔드는 것이었다. 동욱은 머리를 떨어뜨린 채, ㉡내가 자네람 주저 없이 동옥이와 결혼할 테야, 암 장담하구말구, 혼잣말처럼 그렇게도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종잡을 수 없는 동욱의 그런 말에 원구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면서, 암 그럴 테지, 하며 ㉢동욱의 손을 쥐어 흔드는 것이었다.

동욱은 음식집을 나와 헤어질 무렵에 두 손을 원구의 양어깨에 얹고 자기는 꼭 목사가 되겠노라고, 했다. 그것이 자기의 갈 길인 것 같다고 하며 이제 새 학기에는 신학교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었다. 어깨가 축 늘어져서 걸어가는 동욱의 초라한 뒷모양을 바라보고 서서 원구는 또다시 동욱의 과거와 그 집안을 그려 보며, ㉣목사가 되겠노라고 하면서도 술을 사랑하는 동욱을 아껴 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중략)

비 오는 날인데다가 창문까지 거적때기로 가리어서 방 안은 굴속같이 침침했다. 다다미 여덟 장 깔리는 방 안은, 다다미 위에다 시멘트 종이로 장판 바르듯 한 것이었다. 한켠 천장에서는 쉴 사이 없이 빗물이 떨어졌다. 빗물 떨어지는 자리

에는 바께쓰가 놓여 있었다. 촐랑촐랑 쪼르륵 촐랑, 빗물은 이와 같은 연속적인 음향을 남기며 바께쓰 안에 가 떨어지는 것이었다. ⓐ무덤 속 같은 이 방 안의 어둠을 조금이라도 구해 주는 것은 그래도 빗물 소리뿐이었다. 그러나 그 빗물 소리마저, 바께쓰에 차츰 물이 늘어 갈수록 우울한 음향으로 변해 가는 것이었다. 동욱은 별로 원구와 동옥을 인사시키거나 소개하려 하지 않았다.

(중략)

그 뒤로는 비가 와서 가게를 벌일 수 없는 날이면 원구는 자주 동욱이네 집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불구인 그 신체와 같이, 불구적인 성격으로 대해 주는 동옥의 태도가 결코 대견할 리 없으면서도, ㉤어느 얄궂은 힘에 조종당하듯이, 원구는 또 다시 찾아가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었다. 침침한 방 안에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듣고 싶어서일까? 동옥의 가늘고 짧은 한쪽 다리가 지니고 있는 슬픔에 중독된 탓일까? 이도 저도 아니면, 찾아갈 적마다 차츰 정상적인 데로 돌아오는 동옥의 태도에 색다른 매력을 발견한 탓일까? 정말 동옥의 태도는 원구가 찾아가는 횟수에 따라 현저히 부드러워지는 것이었다. 두 번째 찾아갔을 때 동옥은 원구를 보자 얼굴을 붉히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였다. 세 번째 찾아갔을 때는 원구를 보자 동옥은 해죽이 웃어 보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우울한 미소였다. 찾아갈 때마다 달라지는 동옥의 태도가 원구에게는 꽤 반가운 것이었다. 인사불성에 빠졌던 환자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때처럼 고마웠다. 첫 번 불렀을 때는 눈을 감은 채 아무런 반응도 없던 환자가, 두 번째 부르자 눈을 간신히 떴고, 세 번째 불렀을 때는 제법 완전히 눈을 떠서 좌우를 둘러보다가 물 좀, 하고 입을 열었을 경우와 같은 반가움을 원구는 동옥에게서 경험하는 것이었다.

- 손창섭, 「비 오는 날」

41.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야기 속의 이야기를 통해 인물의 과거를 폭로하고 있다.
② 서술자는 한 인물의 시각을 중심으로 작중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③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인물에 대한 독자의 판단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④ 인물 간의 대화를 직접 제시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⑤ 서술자는 극한적 상황에 처한 인물들의 반응을 반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42.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동옥은 극도의 무력감에 빠져 생활고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다.
② 원구와 동옥은 굳건한 사랑으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자 한다.
③ 동욱과 동옥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방관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동욱은 참담한 상황에서도 밝은 웃음을 잃지 않고 낙관적으로 살고자 한다.
⑤ 원구는 동욱에게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도 그를 인간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43. ㉠~㉤의 문맥적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동욱은 자신이 하는 일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함을 드러낸다.
② ㉡: 동옥이 뛰어남을 내세워 원구에게 결혼을 강요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③ ㉢: 동욱의 처지를 동정하여 무슨 말이든 일단 동조해 주는 태도가 드러난다.
④ ㉣: 동욱의 모순된 태도가 현실에서의 삶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임을 암시한다.
⑤ ㉤: 원구도 자신이 왜 그러는지 명확히 깨닫지 못한 상태임이 드러난다.

44. ⓐ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물들이 삶의 안정감 없이 살아야 하는 비참한 상황을 상징한다.
②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물들에 대한 도덕적인 동정심을 의미한다.
③ 부조리한 상황에 처한 인물들이 지향하고 있는 삶의 목표를 상징한다.
④ 고단한 피난 생활에서도 빗물 소리를 통해 위안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⑤ 물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이 모두 충족되어야 행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5. <보기>에 견주어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다 쭈빗쭈빗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이의 길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 살이 되자.

-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① 동욱이 동옥을 떠나가려고 하는 것은 그녀가 '흩날리는 진눈깨비'처럼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이야.
② '바람 불고 춥고 어두운' '세상'에서 동옥은 동욱에게 정신적인 의지처가 되고 있어.
③ '낮은 곳'에 있던 동옥에게 원구가 '함박눈'처럼 다가왔음을 그녀의 태도 변화를 통해 알 수 있어.
④ 동옥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잠 못 든 이'에게 온 '편지'와 같이 동욱에게 위안을 주는 행위였어.
⑤ 원구는 신학교에 가고자 하는 동욱에게 '상처 위에 돋는 새 살'처럼 살아갈 용기를 주는 존재야.

※확인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